

아가타 신사

아가타 신사는 천 년 이상 전부터 지역 농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맡아왔다고 알려지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봄이 되면 매년 신사 축제에서 오곡 풍양을 기원하는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춤) 의식이 행해집니다. 가구라 중에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장소를 재현한 것도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과 첫 비인 아히라쓰히메의 첫 번째 아이였던 다기시미미노미코토가 아가타라고 불렸던 지역의 출신이며, 다기시미미노미코토의 무덤이 아가타 신사의 뒷산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다기시미미노미코토는 이복형제의 방해로 살해되면서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가타 신사는 비극의 왕자와 어머니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 뒤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은 선사 시대의 매장지로 생각됩니다.